

전의(全義)·예안(禮安) 선조 현창 세미나 결과 보고서



2025년 3월 15일(토) 11시-

장소 : 북한연구소 세미나실

전의·예안이씨화수회 본부
한국족보문화진흥원

< 세미나 진행 개요 >

오늘 세미나는 전의·예안이씨화수회본부가 2024년 10월 2일 간담회 및 2024년 11월 3일 정기총회에서 논의한 “선조 100인 현창사업”의 첫 번째 공식 행사로 “전의·예안 선조 현창 1차 세미나”이다. 이번 세미나는 시조 이도(李焯) 시조님의 “심중매원(心中梅園)”을 중심으로 선조님들의 위업을 조명하고, 후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전문가 강연과 연구 발표를 통해 선조 현창사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목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 세미나 발표 목차 >

1. 시조 이도(李焯) 선조님 - 세종 시대의 희망, 심중매원(心中梅園)
- 발표 : 이춘화 (전의·예안이씨화수회 본부 회장)
2. 7세 동암수(東巖叟) 이천(李仟) 장군님의 업적과 역사적 의미
- 발표: 간호운 문학박사 (국문학, 現 인하대 교수)
3. 9세 문의공(文義公) 이언충(李彦冲) 선조님의 학문과 덕행
- 연구: 강성위 문학박사 (중문학, 現 서울대 교수)
- 발표: 김형선 (한국족보문화진흥원 부원장)
4. 전의이씨 모계 혈통에 대한 고찰
- 발표: 송종욱 (한국족보문화진흥원 부회장)
5. 특강 - 우리가 알아야 할 족보의 가치
- 발표: 김원준 (한국족보문화진흥원 원장)

※ 각 발표자의 발표 시간은 8분 기준으로 진행.

< 세미나 발표 후 제언 >

1. 시조 이도(李焯) 선조님 - 세종 시대의 희망, 심중매원(心中梅園)
- 발표 : 이춘화 (전의·예안이씨화수회 본부 회장)

< 시소러스로 본 이천 장군 >

簡鎬允(인하대학교, 프론티어 창의학부)

이천(李仟, 혹은 李阡)장군!: 그의 이름을 딴 ‘이천함’이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의 ‘시소러스(문헌정보학 용어인: 유의어 사전)’를 찾아보았다. 우선 ‘한자 바꾸기’부터, 목록에 없다. ‘한자 바꾸기’ 목록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한자 ‘李仟’을 입력하니, 가장 보편적인 한국사 목록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아예 이름이 없다.(李阡으로 입력하니 소략한 소개가 보인다. 관계서적은 『고려사(高麗史)』, 『이언충묘지(李彦忠墓誌)』, 『동현호보(東賢號譜)』셋이다.) 한국학 데이터베이스인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용어 시소러스’를 찾아보았다. 표제어가 고작 1건으로 “[표제어] 李仟에 대한 검색결과(총 1건)”이다. 설명 역시 단출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천(李仟): 고려 후기의 무신. 본관은 전의(全義). 보승 별장(保勝別將) 이순(李順)의 아들로, 응양군 대장군(鷹揚軍大將軍)·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 등을 지냄.

시대분류 : 한국>고려후기
지역분류 : 충청도>전의
유형분류 : 인명>관인>무신”

이천 장군의 삶에 비하여 소략한 내용이다.

다음으로 ‘이천함’으로 명명한 해군사관학교 도서관을 찾아보았다. 대한민국 모든 논문을 모아놓은 ‘학술연구정보센터(riss)’에 연결되어 겨우 두 편이 뜬다.

1. <편집부, 國產 첫 잠수함-『이천함(李阡艦)』進水 : 국내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의 凱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 기술, 1992>와
2. <김일환, 대몽항쟁기 이천(李阡)의 온수전투 연구, 역사실학회, 2018.11> 두 편 뿐이다.

그것도 1.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이천함’을 만들며 쓴 홍보용이고 2.는 ‘온수 전투(溫水 戰鬪)’ 고증일 뿐, 이천에 대한 인물 연구가 아니다. 결국 이천함을 명명한 ‘해군(海軍)’조차 논문 한 편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러니 이천 장군 자손 관계도도 ‘자: 이자원(李子蓀), 손자: 이언충 (李彦冲), 증손자 이광기(李光起)’ 정도만 보인다.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이천 장군 관계 글’ 역시 ‘이천함’과 관계된 한 두 줄 글 정도이다. 이는 ‘전의예안이씨 족보’를 보아도 동일하다. 족보에도 이천 장군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고려, 조선의 대표적 별열(閥閥)인 전의예안이씨 집안의 선조 현창(顯彰) 사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름 ‘천(阡)’과 ‘천(仟)’을 혼용하는 이유부터 찾아야 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 학술 연구와 연구자 확보를 해결해야 한다.

- 1) 학문적으로 ‘대몽항전기 고려시대 명장 이천(李仟) 장군’에 대한 연구를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 학술 연구가 있어야만 역사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 2) 이천(李仟) 관련 저술을 할 학자 및 연구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언충(李彦冲) 선생 간이 연보

자(字) 입지(立之) / 호(號) 윤재(芸齋) / 시호(諡號) 문의(文義)

- 1273년(원종 14) 계유년에 정순대부 성균관대사성(正順大夫成均館大司成) 이자원(李子蓀)과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 김유선(金惟銑)의 딸 안동김씨(安東金氏) 영가군부인(永嘉郡夫人) 사이에서 출생함. 출생지는 미상이라는 설과 지금의 충남 서천군이라는 설이 있음.
- 1292년(충렬 18) 임진(壬辰) 진사시(進士試) 진사(進士) 1등(一等) 1위[壯元] - 6월 국자시(國子試)
- 1294년(충렬 20) 10월 갑오년 과거에서 22세의 나이로 을과(乙科) 2위(2/33)로 급제하여 내시(內侍)에 들어가 흥신궁 녹사(興信宮錄事)가 됨. 내시(內侍)에 속하였다가 군부좌랑(軍簿佐郎)에 이르렀음.
- 1308년(충렬 복위10) 9월 전의감관(典儀兼官)으로 왕의 생일에 미처 다과를 드리지 못하여 서운제점(書雲提點) 최실(崔實)과 함께 은 1근을 징발당함. 10월 정유일에 충렬왕을 경릉(慶陵)에 안장한 후 능을 봉하는 것을 불길하게 여겨 집의(執義)에서 물러남.[고려사절요 제23권] / 심양왕(瀋陽王) 왕장(王璋:충선왕)으로부터 공로 표시로 정대(鞵帶)를 하사받음. [고려사(高麗史) 32권]
- 1321년(충숙 8) 하정사(賀正使)로 원나라에 파견. 파견되던 달에 밀직부사(密直副使)에 임명 됨.

※ 역임 관직 : 군부좌랑軍簿佐郎 정헌대부대사성正獻大夫大司成 진현관제학進賢館提學 지제교知製敎 통헌대부검교선부전서通憲大夫檢校選部典書 행전의령行典儀令 평양도존무사平壤道存撫使 행평양윤行平壤尹 경상도진변사慶尙道鎭邊使 행김해목行金海牧 개성부윤開城府尹 좌상시판선공시밀직부사상호군左常侍判繕工寺密直副使上護軍 광정대부정단문학첨의평리에문대제학匡靖大夫政堂文學僉議評理藝文大提學 지춘주관사知春秋館事

- 1338년(충숙 복위7) 무인년 별세. 향년 66세. 시호는 문의(文義).

● 이해수(李海壽) 선생의 『약포유고(藥圃遺稿)』에 「약포유고세계(藥圃遺稿世系)」가 있는데 여기에 이언충 선생이 태위왕(太尉王:忠宣王)을 수행하느라 연경(燕京)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보임. 태위왕의 행적이 사서에 다수 보임.

● 1314년(충숙 1)에 서림공(西林公)에 봉해져 서림 이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설. - 서림은 충숙왕(忠肅王) 초기에 서주(西州)로 승격되었는데 서림(지금의 서천군) 출신의 이언충 선생이 충선왕(忠宣王)을 위해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승격된 것이라고 함.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9권 / 충청도(忠淸道)

전의이씨 모계혈통에 대한 고찰

한국족보문화진흥원 부회장 송종욱

□ 강의 방향

조상은 공통 후손의 선조를 뜻한다. 전의이씨 족보에 기록된 도절제사공파의 모계혈통을 중심으로 관련된 족보와 문헌의 조사·연구를 통해,

- 기존 부계 중심의 조상이라는 개념을 모계까지 확대
- 관련된 가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씨족의 역사 및 시대적 배경을 폭넓게 이해

□ 조사·연구 대상

世	先祖	配 (본관, 父-祖-曾祖)	妻 外祖, 비고
1	이도 李棹 통합삼한개국익찬 이등공신삼중대광태사	府夫人 陝川洪氏 父 宰臣 淑	이천서씨 시조 서신일(817~902)의 부인 陝川洪氏
2	이강 李康 정용위대장군	郡夫人 密陽朴氏 父 處置使 安老	경명왕(917~924)→朴彦忱(시조)→郁-滿. 滿의 실전된 네 아들 중 1人??
3	이수영 李秀英 병부상서	郡夫人 淸州韓氏 父 奉御 湜	韓湜의 壻 徐熙(942~998, 서신일의 孫)
4	이문경 李文景 천우위대장군	郡夫人 驪興閔氏 父 政丞 世勳	여흥민씨 시조 閔稱道와 동시대 혹은 앞 시대 인물로 보임. 족보에 없는 시조 이전 인물 다수.
5	이윤관 李允寬 형부시랑	縣夫人 加恩邊氏 父 立中	현 문경 가은읍(尙州 加恩縣), 1985년 29명, 2000년 855명, 2015년 0명
6	이순 李順 保勝別將	陰城 中郎將 蔡冲	蔡冲-음성채씨 시조
7	이천 李仟 문화평장사	府夫人 慶州金氏 起孫-台瑞-鳳毛	外祖 平章事 幸州奇氏 宣弼, 台瑞-전주김씨 시조
8	이자원 李子原 성균관대사성	永嘉郡夫人 安東金氏 惟銑-孝維-敏成	金方慶-敏成의 손자, 孝維의 조카
9	이언충 李彦冲 (1273~1338) 政堂文學 大提學 知春秋館事諡文義	化平君夫人 光州金氏 父 禧	충숙왕 때 대사성 崔濯 墓誌 (동문선)
10	이광기 李光起 政堂文學	縣夫人 陽川許氏 上將軍 寵-琪-遂	김해허씨에서 기원
11	이원무 李元茂 開城尹	縣夫人 慶州薛氏 薛愷(楊原君)	薛聰-慶州薛氏의 시조 (증보문헌비고)
12	이구 李龜 漢城尹	貞夫人 漆原尹氏 判事 茂	족보에 나타나지 않음
13	이승간 李承幹 (一子) 慶尙右道節制使	貞夫人 晉州河氏 領相 崙-允隣-侍源	外祖 星州 李仁美-兆年의 孫, 李仁任의 弟, 河崙의 장인
14	이성전 李誠全 문과통훈대부 順天府丞	南陽洪氏 寅-師普-彦博	彦博-기철 일파 숙청, 흥건적 침입 공민왕 호종, 홍왕사의 난으로 죽음
15	이삼로 李三老 성균관진사敦寧都正	仁川李氏 府使 繼長	外祖 海州 鄭勗 繼長-대구 무태 입향조
16	이수봉 李秀蓬 성균관진사주부덕천군수	原州邊氏 府院君 尙服(? ~ 1455)	尙服-부인은 조선 제2대 왕 정종의 딸 德川郡主
17	이중식 李仲植 성균관진사장성현감	彦陽金氏 縣監 克均-和-瀟	克均(16세), 就礪(8세)-몽고군에 쫓긴 거란 유민에게 대승한 장군
18	이보 李補 진사	驪興閔氏 鎭岑縣監 琨-孝純-悟	鎭岑-현 대전시 유성구 진잠동

□ 전의이씨와 야성송씨

- 12세 龜의 四子 萬幹의 壻 冶城 宋紹(14세, 1415~1474)
- 冶城宋氏 8세 璟은 政堂文學, 11세 吉昌은 開城尹 역임

우리가 알아야 할 족보의 가치

- 발표: 김원준 (한국족보문화진흥원 원장)

1. 족보란 무엇인가?

2. 족보의 필요성!

3. 족보의 발전 방향

세미나 발표 후 제언

세미나 자료를 준비하며 강사진은 천년 명문가인 전의·예안이씨의 선조들에 대한 연구자료가 매우 부족함에 당황하였다.

특히 현조(顯祖)라 일컬을만한 시조 이도 선조, 수군 전투의 명장이셨고, 실질적인 중시조 격인 이천 장군, 문의공 이언충 선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와 연구서 그리고 이를 연구한 연구자와 연구자료는 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미나 발표자 일동은 전의·예안이씨화수회본부 차원의 적극적인 선조 현창사업 추진을 적극 제안한다.

김원준 한국족보문화진흥원 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이제 남자 후손뿐 아니라 여성 종친들의 참여와 활동에 나설 때라고 하였다. 송종욱 부회장의 발표 주제처럼 모계혈통을 통해서 더욱 광범위한 선조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면 기본적인 직계 선조님에 대한 연구와 현창이 더욱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간호운 박사는 화수회본부 차원에서 연구자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공신력 있는 논문을 통해 선조의 현창사업이 공고히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김형선 부원장은 한국족보문화진흥원이 가진 풍부한 기초 자료와 연구진과 전의·예안이씨화수회본부의 협력은 선조 현창 사업의 가장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의·예안이씨 후손들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더욱 고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열린 첫 번째 세미나를 시작으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세미나 활동 전개를 추천한다.

오늘 세미나 수강자들도 화수회본부의 선조 현창(顯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였고, 이춘화 화수회본수 회장도 이를 적극 수용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세미나 행사 사진)









전의(全義)·예안(禮安) 선조 현

— 시조 이도, 7세 이천 장군, 9세 문의공, 전의이씨

◆ 일시: 2025년 3월 15일(토) 11:00 ~ 13:00 ◆ 장소: 전의·예안이씨화수회본부 & 북한연구소 6층 세미나









행사 후 중식 환담)

